



News 01 FTA 추진 및 이행 동향

□ 콜롬비아

○ 카리콤 (카리브 공동체 국가)과 캐나다 FTA 진행 현황

- 콜롬비아 정부, 2015년부터 5년간 국가 농지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설정
 - 과일, 채소, 임업, 카카오, 팜 오일, 옥수수과 콩 부문에 특화된 200만 헥타르의 국가 농지를 취득하게 될 것
- 콜롬비아 농업부는 초강대국과 FTA가 체결된 이후 20개월 만에 커피, 꽃, 바나나를 제외한 농산물 수출이 14.3%나 증가했다고 강조함
 - 산업통상문화부의 산티아고 로자스(Santiago Rojas)는 미국과의 FTA 체결은 콜롬비아 농업에 엄청난 기회이지 위협은 아니라고 확인함
 - 콜롬비아는 거대한 국제 식품공급처가 되고자 하는데 세계와의 상업통합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완벽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함
- 그러나 수십년동안 준 군사 조직에게 인수되고 관리된 수천개 농장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
 - 농업부의 루벤 다리오 리자랄드(Ruben Dario Lizarralde)는 상속인의 토지를 세분화시키고 등기를 해야 할 때나 입법이 지연되는 것은 이 목표가 하나의 도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임

- 또 다른 과제는 콜롬비아에게 50%의 무역수지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페루, 칠레,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 국가들과 균형 잡힌 교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

- 또한 한국은 비공식 방문 기간 동안 콜롬비아산 감자에 관심을 표했는데 이것은 콜롬비아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음

- 콜롬비아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CA*와 Invima*를 재개편시키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

*ICA(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) : 국제상품협정. 국제상품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에서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재고량 등에 대해서 체결하는 국제간 협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, 세계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임. 소맥, 설탕, 주석, 커피, 올리브유, 코코아, 천연고무, 주트, 목재 등의 국제상품협정이 있음

*INVIMA : 콜롬비아 식품/의약품 안전청으로 1993년 설립되어 현지 수입/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/의약품의 안정성 평가 및 유통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

※ 본문출처 : <http://www.bilaterals.org/?colombia-seeks-to-double&lang=en>

□ 인도

○ FTA 철강 수입에 대한 인도의 입장

- PTI (Press Trust of India : 인도의 통신사)에 따르면 인도의 뉴델리는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철강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
- 인도의 철강부는 인도와 일본 / 한국간의 경제 협정에 따라,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제로에 가깝게 인하되어 가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입이 있었고 철강 제품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수출물품들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려야한다고 주장

- 인도는 2009년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, 2011년에는 일본과 FTA를 체결함
- FTA를 체결함에 따라 두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점차 줄어들거나 무관세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과 한국은 관세 이익을 누리고 있음
- 이 흐름세와 더불어 러시아, 유럽지역에서 인도 철강 제품들로 대체해 나가면서 인도 철강 제품이 전체 철강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
- 2013 회계년 기준, 인도는 544만 톤의 철강을 수입하여 지난 회계 연도 동안 인도는 순수 철강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함
- 국내 철강 기업과 업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
- JSW(인도철강 기업)의 회장 사잔 진달(Sajjan Jindal)은 한국과 일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국가가 FTA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인도에 철강을 덤핑 처리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상공회의소(Assocham) 역시 인도-한국 / 인도-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(CEPA)에서 국제 무역 센터 (ITC) 코드의 제72장에서 철강 제품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
-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FTA에서 어떤 제품을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증명할 만한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함

※ 본문출처 : <http://www.bilaterals.org/?steel-should-be-kept-out-of-fta&lang=en>

News 02 경제/산업 동향

□ 미국

○ 1분기 美 경제,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

- 최근 미국 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($\Delta 1.0\%$) 성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보였으나, 이는 연초 이상관화로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
- 향후 미국 경제는 기상 악화의 영향이 소멸하고 개인소비와 주택투자도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1분기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
- 기상악화와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경기회복세 둔화, 전 분기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 큰 폭 감소
- 수출증가율: 9.5% (13.4Q) $\rightarrow \Delta 6.0\%$ (14.1Q)

<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>



※ 출처 :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(U.S. Bureau of Economic analysis)

주: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

• 1분기 경제성장률 부진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(IB)들의 평가

- 1분기 부진은 날씨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, 미국 경제의 기초여

건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

골드만삭스	· 1분기 성장률은 날씨요인에 의한 것이며, 이는 경제의 기초여건이 반영된 것은 아님
씨티은행	· 1분기 낮은 성장률은 혹한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2분기부터 경기상승 기대
HSBC	· 날씨에 의한 일시적인 요인이 1분기 성장세 저하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

○ 2월 이후로 경기 회복세 다시 강화

- 소비지출 : 개인소비지출 1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, 소매판매도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도 4월 들어 큰 폭 개선
- 다만, 4월 중 개인소비지출 및 소매판매는 난방비 지출 급감에 따라 전월 대비 일시적 부진

< 주요 소비 관련 지표 추이 >

구분	'13.11	'13.12	'14.1	'14.2	'14.3	'14.4
개인 소비지출	0.5	△0.1	0.0	0.5	0.8	△0.3
소매판매	0.4	△0.1	△0.9	0.8	1.2	0.1
소비자신뢰지수	75.1	82.5	81.2	81.6	80.0	84.1

※ 출처 : BEA, Census Bureau, 미시건대 등

- 주 : 1. 개인소비지출*은 전월 대비 실질 증가율(%)
 2. 소매판매**는 전월 대비 명목 증가율
 3. 소비자신뢰지수***는 미시건대 기준

- 생산활동 : 산업생산(Industrial Production)은 1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ISM 제조업 지수도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생산 활동도 완전한 회복세
- 다만, 4월 들어서는 기온상승(봄철 따뜻한 날씨)으로 전력 생산이 크게 감소(△5.3%)하면서 전체 산업생산도 0.6% 감소했는데, 이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

< 주요 생산 관련 지표 추이 >

구분	'13.11	'13.12	'14.1	'14.2	'14.3	'14.4
산업생산*	0.5	0.1	△0.2	1.4	0.7	△0.6
ISM제조업지수**	57.0	56.5	51.3	53.2	53.7	54.9

※ 출처 : Federal Reserve, ISM

주* : 산업생산*은 전월 대비 증가율(%)

주** : ISM제조업지수**는 월별 제조업 지수

News 03 무역 관련 주요 이슈

□ 일본

○ 일-미 TPP 관세교섭, 돼지고기 문제가 최대 현안

-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일-미 간 관세교섭에서 일본 정부는 저가격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교섭에 임할 것으로 알려짐
-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되는 차별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, 이를 일률적으로 kg당 수십 엔에서 100엔 정도 징수하는 ‘종량세’를 원칙으로 변경할 방침임
- 저렴한 수입고기일수록 판매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미-일 간 협의가 한층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
- 미-일 등 TPP교섭 참가국은 5월 하순에 싱가포르에서 각료회담을 개최했으나, 전반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음
- 각국은 7월에 다시 각료회담을 개최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며, 일-미 양국은 이에 앞서 이달 29일부터 실무자교섭을 재개할 예정임
- 최대 초점 중 하나가 돼지고기를 둘러싼 관세문제임
- 돼지고기의 차별관세제도는 1971년 수입자유화에 따라 저가 외국산의 대량 수입을 막기 위해 도입됨

-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전체의 약 40%에 달하고 슈퍼마켓에서 정육으로 판매되는 이외에도 햄 등 가공 원료로도 사용
- 미국산 평균 수입가격은 1kg당 279엔으로 도매가격이 626엔인 일본 산의 절반 이하 가격임
- 수입육도 국내 도매가격이 1kg당 550엔 정도로 되게 하려고 수입가격과의 차액을 관세로 징수하고 있음
- 예를 들어 수입가격이 100엔이면 관세는 약 450엔, 수입가격이 300엔이면 관세가 약 250엔이 되는 구조로, 국내가격과 가깝게 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막고 있음
- 미국은 ‘저렴한 수입육일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’고 주장, 발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
- 일본 정부는 이 차별관세제도를 대폭 축소해 저가격대와 중가격대의 수입 돼지고기는 중량에 따라 같은 금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‘중량세’로 바꿀 방침임
- 미-일 양국 정부는 이 안을 축으로 협의에 들어갔으나 중량세 수준은 kg당 일본은 100엔 정도, 미국은 수십 엔 정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
- 일본 측의 주장대로 1kg당 100엔 정도가 되면 1kg에 279엔의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379엔이 돼 현재의 550엔 대비 대폭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음
- 즉, 중량세로 이행하면 저렴한 수입육일수록 국내 유통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대규모 축산사업자가 많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며, 수입가격이 500엔 전후의 돼지고기는 차액관세를 일부 남긴다는 방침임
- 현재의 돼지고기 관세제도는 복잡해 수입가격이 64.53엔 이하의 매우 낮은 가격대의 것은 일률적으로 482엔을 징수하는 ‘중량세’를 부과하고 있고, 64.53-524엔의 중저가 돼지고기는 이번 교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차액관세로 국산품에 가까운 546.53엔을 기준 가격으로 해 수입액과의 차액이 관세액이 되는 구조임

- 524엔을 초과하는 고가격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의 4.3%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‘중가세’를 부과하며, 이 가격대의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50% 이상 인하하거나 완전 철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중량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관세 수준은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 관세율을 인상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의 발동 기준과 조합해 결정됨. 쇠고기와의 균형도 중시한다는 방침임
- TPP의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이는 돼지고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짐
- 미국에서는 돼지고기 축산업계가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고, 대 의회 로비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돼지고기는 미각으로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‘국내 양돈업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’는 입장임
- 일본 정부는 쌀, 보리, 설탕, 육류, 유제품 등 5개 중요 항목을 관세철폐의 예외로 할 방침으로 TPP교섭에 임하고 있음
- 일본의 최대 성역인 ‘쌀’은 미국의 업계 단체가 그다지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-미 교섭에 있어 강한 마찰로 등장하지 않고 있음
- 현재는 ‘돼지 고기’가 최대 현안이며 쇠고기는 일부 고급육이 브랜드화에 성공했고,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, 돼지고기는 브랜드화 전략을 펼치기 쉽지 않아 보호정책에 의존해 왔음
- 돼지고기 관세를 인하하면 일본 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임
- 미국의 돈육업자는 1980년대 이후 근대화와 대규모화를 추진, 경쟁력과 자금력을 쌓아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면서 TPP교섭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
< 일본 내 돼지고기 시장점유율 >

(단위 : %)

구분	국내산	미국산	캐나다산	덴마크산	기타
비중	54	18	10	7	11

※ 출처 : 일본경제신문

[정보 출처]

- [1] 한국 관세청(www.customs.go.kr)
- [2]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- [3]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www.kotra.or.kr)
- [4]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(www.bea.gov)
- [5] Wall Street Journal(www.wsj.com/Subscribe-WSJ)
- [6] New York Times (www.nytimes.com)
- [7] 미얀마 주간투자 뉴스(www.news-eleven.com)
- [8] Myanmar Business Today(www.mmbiztoday.com)
- [9] 일본경제신문(www.nikkei.com)